

‘순-담 메타서클프로젝트’ 사업 순조

순창군, 2020년까지 43억원 들여 총 3.8km ‘관광로드’ 구축 순창 고추장민속마을·담양 학동리 인근 투어스테이션 조성

순창군이 담양군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순-담 메타서클 프로젝트’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순-담 메타서클 프로젝트’는 전라도 정도 1000년을 맞아 전북도와 전남도가 힘을 모아 시작하는 첫 사업으로, 도(道) 경계를 넘어 관광교류의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17일 순창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20년까지 총 43억원을 들여 담양군 금성리부터 순창읍 백산리까지 총 3.8km 구간에 메타세쿼이아를 가로수로 심어 담양에서 순창까지 이어지는 관광로드를 만들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는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확장 및 고추장민속마을 및 담양읍 학동리 인근에 투어스테이션 조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군은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이 완성되면 연간 700만의 관광객이 순창을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국도 24호선 확장공사가 올해 말 완

공되면, 인근 대도시에서 순창으로 유입되는 관광객이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순-담 메타서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순창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길. <순창군 제공>

군은 이와 관련해 순창 향교와 신말주 선생 후손 세거지, 귀래정 등 순창 문화유적과 담양의 관방제림, 향교, 죽향문화체험마을 등의 문화유적지를 결합해 1박2일이나 당일 투어 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이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현재 순창군은 관광

객 500만명 달성을 목표로 투자선도지구 지정, 메타서클 프로젝트, 순창향교 전통문화 단지 조성 등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10년이내 순창군이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탈 바꿈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창=장영근 기자 jyr@g



완도군, 국내 첫 시티투어 수륙양용버스 도입

지엠아이그룹과 운행 협약

완도군에 국내 처음으로 육상과 해상을 달리는 시티투어 수륙양용버스가 도입될 전망이다.

완도군에 따르면 신우철 군수와 이준암(주)지엠아이그룹 대표는 지난 15일 완도군청에서 완도항과 주요 관광지를 운행하는 수륙양용버스 운영에 대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지엠아이그룹은 대당 25억원 상당의 수륙양용버스 3대를 완도지역 주요 관광지에서 운행할 계획이며 사업규모나 운행 코스에 대해서는 완도군과 사전 협의하기로 했다.

완도군은 지엠아이그룹이 완도에 투자하도록 각종 인허가 절차를 지원하고 수륙양용버스 운영을 위한 경사형 접안장과 편의시설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준암 대표는 “지엠아이그룹에서 제조한 시티투어 수륙양용버스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사고발생 시 침몰하지 않는 포밍시스템을 적용했다”며 “육상에서 시속 100km, 해상에서 10-15 노트로 운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시티투어 수륙양용버스가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하는 새로운 개념의 해양관광 상품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출판본부장

정읍시 문화도시 조성 사업자로 (사)들레 선정

5년간 총 37억여원 투입 문화격차 해소 등 다양한 세부사업 추진

정읍시는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 조성 사업 사업자로 지역 문화사업 대행사인 (사)들레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문화특화지역사업은 지역경제성을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창조와 공동체 문화형성을 위한 사업으로 5년간 총 37억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돼 ‘문화 격차 해소’, ‘문화 역량 강화’, ‘문화 발굴 창

조’ 등 세 분야의 다양한 세부사업들이 추진된다.

들레는 ‘상상마당 후후’와 문화예술이카데미인 ‘드루와 예술학당’ 등 문화예술 관련 9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제안서를 제출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은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정읍시가 선정됐으며 이에 따라 시는 지난 3월 문화특화지

역 추진위를 구성하고 사업자 공모공고와 과정을 거쳐 최근 들레를 선정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들레는 시와 협의를 거쳐 문화특화지역 보조 사업을 확정하고 11월 중 본격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수천 정읍시 문화체육과장은 “이번 선정으로 문화특화 지역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법정 문화도시 지정’ 신청으로 전국에서 명실상부한 찾고 싶은 문화 관광도시 정읍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전북 도립여성중고등학교 ‘만학도’ 신입생 60명 모집

전북 도립여성중고등학교가 만학의 꿈에 도전할 2019학년도 신입생 60명을 모집한다.

중학생 30명, 고등학생 30명이며 15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 원서 등을 학교에 내면 된다.

만19세 이상 성인 여성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서류 전형과 면접을 거쳐 선발한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전북 무형문화재 한마당 축제 오늘 개막

전주 한벽문화관서 예능 보유자 등 참여 공연·전시 행사

전북 무형문화재 한마당 축제가 ‘전라도 천년, 여백 바람 일다’를 주제로 18일부터 20일까지 전주 한벽문화관에서 열린다.

전북무형문화재연합회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주최·주관하고, 전북도가 후원하는 이번 축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북지역 예인들의 공연과 전시를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종합 무형문화재 축제이다.

이번 축제는 전통예술의 미적 가치를 전북 예인들의 무형 몸짓과 소리로 전달해 시대 간 공감을 유도하고, 무형문화 향유를 통해 세대 간의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으로 전북 무형문화재의 보존과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

축제는 무형문화재 예능 보유자 16명과 단체 5개, 기능보유자 32명이 참여하

며,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로 꾸며진다.

18일 전북도 무형문화재 제38호 호남 냇풀이굿을 시작으로 김광숙(예기무), 지성자(가야금산조), 김명신(판소리), 강정렬(가야금산조 및 명창), 최승희(판소리), 김소연(판소리) 등의 예능 보유자의 공연이 펼쳐진다.

이어 19일에는 이일주(판소리), 최선(호남살풀이춤), 민소완(판소리), 순창금과들소리, 전주기집놀이, 고창농악 등을 선보인다.

마지막 날에는 임실필봉농악, 김영희(시조), 이용길(판소리), 김부철(한량무), 박애숙(가야금명창), 조소녀(판소리), 문정근(전라삼현승무), 왕기석(판소리) 등의 예능 보유자가 참여해 전북 무형의 맛을 한껏 뽐낼 예정이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우리나라 최고의 진돗개 가린다

진도군, 오는 20~21일 ‘우수 진돗개 선발대회’

진도군이 오는 20일부터 이틀간 진돗개 테마파크 일원에서 ‘제26회 대한민국 우수 진돗개 선발대회’를 연다.

천연기념물 제53호인 진돗개 위상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대한민국 국경인 진돗개 이미지 향상과 관광산업을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진돗개가 세계 명견 자리를 지켜나가기로 활동을 보존하고 우수 진돗개 보호 육성 등을 비롯해 전국 진돗개 애견인의 화합과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문화재청, 전남도가 후원한다.

우수 진돗개 선발대회, 진돗개 공연·장애물 경주 시범 등 진돗개테마파크와 연계 다채로운 행사와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진도군 관계자는 “우수 진돗개 발굴·보존과 육성에 크게 이바지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산업으로 도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지내해 열린 대한민국 우수 진돗개 선발대회.

군산고용위기지원센터, ‘부부리모델링’ 프로그램 진행

군산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가 실업과 구직에 대한 스트레스로 심신이 지친 근로자 15가정을 대상으로 오는 19일과 20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부부 리모델링 행복에 몰들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가족 안의 이해와 배려를 통해 이

기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결혼과 가족의 가치 ▲다가가는 대화 ▲치료놀이 ▲힐링산책 등으로 배우자에 대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돕고 부부만의 힐링시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막는 것 산이거든 무늬고 뭉 가라!!

조대부고 총동창회 친선 체육대회

일시 2018. 10. 21(일) 09:30~

장소 모교 운동장

전화 (062)224-1461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총동창회장 노동일

전라남도 공고 제2018-807호

제62회 전라남도 문화상 수여계획 공고

전라남도민으로서 문화예술의 창달과 전통문화의 창조적 전승·개발에 기여한 사람을 발굴 수여함으로써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예향 전남의 위상을 드높이고자 제62회 전라남도 문화상 수여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0. 12.

전라남도지사

- 수여부문 및 인원
 - 수여부문
 - 문학부: 시, 소설, 수필, 문학, 평론, 기타 문학분야
 - 예술부: 미술, 음악, 영화, 무용, 사진, 국악, 연극, 공예 등
 - 학술부: 사학, 철학, 사회학, 언어학, 고고학, 정치학, 법학, 경제학, 이학, 의학, 약학, 공학, 농학, 수산학 등
 - 시상인원: 10인 이내(부문별 인원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수상자격
 -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도내에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 공적이 현저하여 국내외적으로 탁월한 문화적 역량이 인정된 사람
 - 개인 또는 단체의 일원으로 활발한 문화활동 전개로 지역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 ※ 공고일 현재 도내에 3년이상 거주한 자가 아니어도 전남문화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는 도지사, 도의회의장, 시장·군수가 추천
 - 수여일: 2018년 11월중
 - 후보자 추천권자
 - 문학부: 대학 총장, 언론기관 대표, 예총 도지회장 및 문화 관련 단 단위 단체장, 시장·군수
 - 예술부: 대학 총장, 예총 도지회장 및 예술관련 단 단위 단체장, 시장·군수
 - 학술부: 도 교육감, 대학 총장, 시장·군수
 - ※ 추천제외: 금지산자 또는 한정지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동일 부문 문화상 수상 경력이 있는 사람
 - 제출서류
 - 추천서(소정양식) 2부(1부는 편철) ○ 이력서(사진첨부) 2부(1부는 편철)
 - 공적요약서 및 공적조서(소정양식) 각 2부(1부는 편철) ○ 현지조사확인서(소정양식) 각 2부(1부는 편철)
 - 주민등록등본 2부(1부는 편철) ○ 기타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빙자료(저술서, 작품집, 언론보도, 상장사본 등) 1부(편철)
 - 사진(여권용, 3.5cm × 4.5cm) 1매
 - ※ 1부는 심사용이므로 표지에 「제62회 전라남도문화상 심사서류」 제목과 하단부에 「성명」을 표시한 후 상기 순서대로 파일철에 편철하여 제출, 각종 사본은 원본대조될 기재 및 확인자 날인 후 제출(가능한 방법으로 증명)
 - (1.이력서, 2.공적요약서 및 조서는 담당자 메일 jong1671@korea.kr로 별도제출)
 - 서식배부 및 접수
 - 서식배부: 전라남도 홈페이지(www.jeonnam.go.kr → 도정소식 → 고시/공고 → 제62회 전라남도문화상 수여계획)에서 내려받아 작성
 - 접수처: [우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1 전라남도청 문화예술과 ※ 방문 제출, 우편 접수(2018. 10. 31. 도착분까지 유효)
 - 접수기간: 2018. 10. 12.(금) ~ 10. 31.(수) (20일간) ※ 2018. 10. 31. 도착분까지 유효
 - 심사방법: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수상자 발표: 2018년 11월 중순 개별통지
 -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수상후보자가 제출한 공적내용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수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심사위원회 심사 시 부문별 수상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을 수여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문화예술과(061-286-54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